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 모처럼 '소나기타'...7연패 탈출

김주형 홈런 등 16안타로 '곰 사냥'

두산 병살타 6개 '1경기 최다' 수도



KIA가 '차세대 거포' 김주형의 홈런포를 발판으로 7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KIA는 24일 잠실 구장에서 계속된 2007 삼성PAVV 프로야구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스코비의 호투와 김주형의 솔로포를 결집해 장단 16안타를 몰아치며 두산을 11-2로 꺾고, 올 시즌 최다연패인 7연패를 마감했다.

스코비는 7이닝동안 10피안타, 3볼넷, 2실점으로 시즌 2승(2패)째를 챙겼다. 반면 12안타를 터트린 두산은 병살타만 6개를 때려내며 한국프로야구 통산 한 경기 최다 병살타란 웃지 못할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5월 에서튼의 후임으로 한국땅을 밟은 스코비는 5월 22일 롯데전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 이날까지 7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다.

'용병 에이스' 스코비의 호투쇼에 KIA타선도 모처럼 힘을 냈다. 선봉에는 '차세대 거포' 김주형이 섰다. 김주형은 1-2로 뒤진 2회초 상대 선발 김승희의 3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포(시즌 6호)를 터트렸다.

김주형의 홈런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KIA는 3회 선두타자 김종국의 볼넷과 이현곤의 우중간을 깨뜨려 2루타로 1점을 더 보냈다. 계속된 공격에서 KIA는 장성호와 송산의 연속안타와 상대 투수의 폭투까지 묶여 3점을 추가해 6-2로 점수차를 크게 벌렸다.

6회에는 1사 2, 3루서 김종국의 좌측 펜스를 맞는 2타점 2루타로 승부에 해기를 박았고, 7회에도 1사 후 김주형, 류재원, 김상훈, 손지환의 릴레이 안타로 3점을 더 뽑아냈다.

한편 KIA는 지난 23일 열린 잠실 두산전에선 잦은 수비실책 탓에 2-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KIA는 2-1로 앞선 3회 2사 3루서 상대 최준석의 평범한 3루수 앞 땅볼이 송구 에러로 빠져면서 1점을 추가 실점했고, 5회 2사 2루서 고영민에게 행운의 중전 결승타를 헌납했다.

KIA 선발 윤석민은 6.1이닝 6피안타, 3실점을 기록, 지난해 6월 21일 광주전부터 이어온 두산 상대 33이닝 무실점 행진을 35.1이닝에서 마감했고, 시즌 10패째(4승)를 떠안았다. 김주형은 2회 시즌 5호 솔로홈런을 쏘아올렸다.

/잠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KIA의 경기. 3회말 2사 1,3루, 투수 폭투 때 3루에 있던 KIA 김주형이 홈에서 득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신바람'

KLPGA KB스타투어 우승

올 시즌 4번째 정상 입맞춤

한국여자 골프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됐다. 신지애는 23일 경북 포항 오션힐스골프장(파72·6천248야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며 16언더파 200타를 쳐 지은희(21·캘러웨이·14언더파 202타)를 2타차로 따돌리고 시즌 네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특히 신지애는 힐스테이트 서경 오픈과 MBC투어 비씨카드 클래식에서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해 한국여자 프로골프의 최고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역대 한국여자 프로골프에서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한 선수는 1996년 박세리(30·CJ)와 1997년 김미현(30·KTF) 뿐이었다.

신지애의 우승 스코어는 1995년 박세리, 2006년 안선주(20·하이마트)와 이지영(22·하이마트)이 작성한 54홀 역대 최저타수와 타이 기록이다. 또 우승 상금 3천600만원을 보며 2억8천200만원의 시즌 상금을 챙긴 신지애는 2위 안선주(1억7천900만원)와 격차를 더욱 벌리며 2년 연속 상금왕 타이틀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은희에 1타 앞선 선두로 마지막 날을 맞은 신지애는 퍼트수가 30개에 이르렀지만 100%의 그런 적중률을 보인 컴퓨터 아이언샷을 앞세워 전반에만 보기없이 버디 3개를 잡아냈다.

하지만 지은희도 전반에 버디 3개로 맞서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11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주고 받았던 신지애와 지은희의 공방전은 15번홀(파5)에서 균형이 깨졌다. 지은희가 15번홀에서 파에 그친 반면 신지애는 이 홀에서 세번째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며 2타차로 벌렸다.

지은희는 추격에 나섰지만 16번홀(파4)에서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17번홀(파3)에서도 티샷을 핀 멀리 떨어 뜨려 타수를 줄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18번홀(파4)에서 지은희는 두번째 샷을 핀 1m 이내에 붙인 뒤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먼저 돌아왔지만 승패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고 신지애는 편안한 마음으로 3m자리 버디 퍼트를 잡아 넣어 우승을 확정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3일 경북 포항 오션힐스골프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스타투어에서 우승한 신지애가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환 '점경사'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신인왕에 올랐던 기대주 이동환(20·교래대)이 생애 첫 우승과 함께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을 따내는 점경사를 맞았다.

이동환은 24일 효고현 요미우리골프장(파72)에서 열린 예정이던 일본프로골프 미즈노오픈 요미우리클래식 최종 라운드가 짙은 안개로 취소되면서 3라운드까지 성적(12언더파 204타)으로 우승컵을 안는 행운을 누렸다.

전날까지 사흘 연속 68타씩을 때려 2위 그룹(8언더파 208타)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려 우승을 예약했던 이동환은 일본 진출 2년만에 첫 우승을 일거에 상금 2천600만원을 받았다. 또 7월19일 열리는 브리티시오픈 일본 지역예선을 겸한 이 대회 우승으로 이동환은 세계 최고(最古)의 골프대회 출전권도 확보했다.

일본투어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 가운데 '말형'인 김동덕(46·나노소울)도 1999년 이 대회 우승으로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했다.

이동환은 2004년 일본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으로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17세3개월) 우승을 차지했고, 작년 6월에는 2부투어에서도 최연소 우승컵을 들어올린데 이어 같은 해 최연소 신인왕에 오른 유망주이다.

이승호(21·투어스테이지)도 2위 그룹에 이름을 올린 덕에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을 받았다.

김인경, 선두와 1타차 2위 웨그먼스 LPGA 3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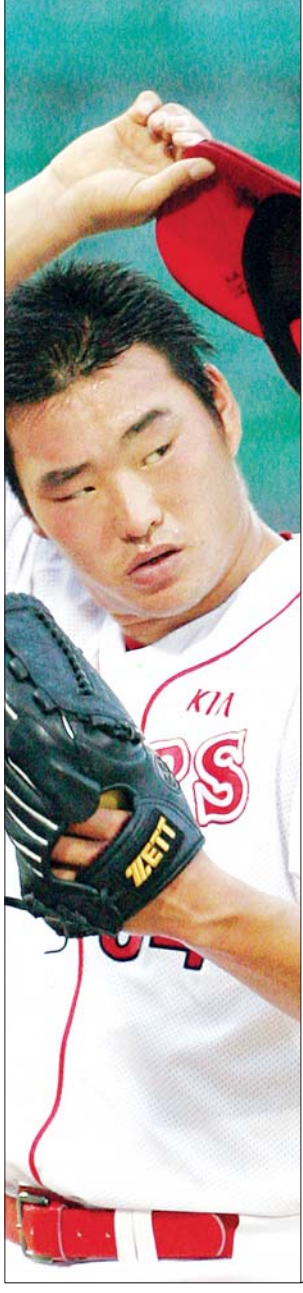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새내기 김인경(19)은 LPGA 투어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챔피언즈에서 우승컵을 놓고 대결한다. 웨그먼스LPGA 수석 합격자인 김인경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파츠퍼드의 로커스힐골프장(파72·6천32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 209타로 오초아에 1타 뒤진 2위를 달렸다.

코난클래식에서 4위에 올라 한차례 '톱10' 입상 밖에 없는 김인경에게 오초아가 벽찬 상대지만 '저도 본전'이라는 신인의 패기로 맞설 경우 승산이 있다.

김인경과 2라운드에서 공동선두를 이뤘던 '말안나' 김미현(30·KTF)은 3타를 잃어 오초아에 5타 뒤진 공동4위(4언더파 212타)로 밀려났다.

홍진주(24·SK)가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4위로 올라서 모처럼 상위권 성적을 바라보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진우는 '마운드 울렁증'?

연습 피칭은 좋은데 실전에서 난조

전문가 "심리적 부담 너무 큰 탓"

"볼펜에 잘 던지는데..."

24일 잠실 두산전에 앞서 김진우의 볼펜피칭을 지켜보던 서정환 KIA 감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진우는 23일 57개, 24일 78개의 공을 실전 피칭으로 던졌다. 직구의 컨트롤만 약간 떨어질 뿐 변화구의 제구력은 완벽에 가까웠다.

서 감독은 "저 정도 볼이면 충분히 통하는 데 마운드에만 올라가면 흔들리니 큰 일"이라면서 "화요일(26일)이나 수요일(27일)쯤에 선발로 등판 시켜보고 안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며 김진우의 2군행을 암시했다.

일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몸을 만든 김진우는 올 시즌 시범경기 이전 만에도 개막전 선발로 뽑혔다. 그런데 막상 시범경기서 투구를 열어보니 직구 최고 구속은 140km에 초반을 땀땀하고, 변화구의 컨트롤도 안됐다. 김진우는 결국 시즌을 2군에서 시작했다.

5월 초 등판 예정이었던 김진우는 한달여가 늦은 이달초 1군에 합류했고, 서 감독은 김진우의 선발진 가담에 "이제 좀 승투이 트이게 됐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일 1군 첫 마운드에 오른 뒤 3경기에서 볼넷을 20개

나 내렸고, 지난 20일 한화전에선 직구의 제구력이 전혀 되지 않아 1이닝 동안 볼넷 5개를 내주고 강판당했다. 스트라이크존을 잊어버린 듯 했다.

김진우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지 모르겠다. 오히려 내가 답답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날 서 감독과 함께 김진우의 실전피칭을 지켜본 박노준 SBS야구 해설위원은 "직구의 제구력만 약한 흔들릴 뿐 나머지 공은 좋다. 다만 마운드에 서면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듯 하다"며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흔히 있는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에 걸린 듯 하다"고 진단했다.

김봉근 KIA 투수 코치도 "올해처럼 (김)진우가 열심히 훈련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다음 등판때는 '찰테면 치라는 식'의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하길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은 어느 순간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투수에게 붙여진 서글픈 애칭이다. 8년 통산 100승의 고지에 올랐던 피츠버그의 투수 스티브 블래스가 1973년 시즌부터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고, 방출당한 뒤 불은 명칭이다. 원인은 승부의 압박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있다.

/잠실=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즈 749호 홈런

뱅크아론 기록에 6개차

미국프로야구의 홈런 기록에 도전하는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통산 749번째 아치를 그리면서 뎅크 아론(755 홈런)의 기록에 6개 차이로 다가갔다.

본즈는 2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인타리 그 홈경기에서 2-6으로 뒤진 8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볼카운트 2-3에서 스카 프록터의 8구째 직구를 강타해 그라운드 한가운데를 가르는 솔로 홈런을 뽑아냈다.

김병현 선발 복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남아 있던 한국인 투수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선발진에 복귀한 반면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은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등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플로리다는 24일(한국시간) 김병현이 25일 오전 2시5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선발등판한다고 예고했다.

반면 선발진에서 탈락한 백차승은 18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백차승은 마이너리그 트리플A 타코마 레인저스에서 재활 등판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린다.